

박찬모 /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포항공대 교수

가능성사고를 가지고 다함께 땀시다.

癸酉年 새해를 맞아 한국전자공업진흥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전자 및 정보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文民정치的新로운 장이 열리고 신한국창조라는 기치아래 새 정권이 출범하는 금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고 산업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년으로 창립20주년을 맞는 한국정보과학회도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과학 기술발전과 정보산업진흥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창립이래 임원과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학회로서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고 산학협동을 통한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년으로 탈바꿈하는 이시점은 그동안의 발전을 발판으로 하여 새로운 도약을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학회본연의 임무인 정보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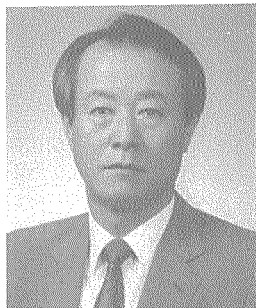
분야 기술의 발전보급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연구회가 더욱 활성화되며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학술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학회는 회원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구하고 회원각자는 학회의 중요한 구성요원으로서 학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되리라 봅니다.

곧 다가올 21세기 첨단기술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는 정보산업의 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개발이나 장치기술도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보과학회의 큰 역할중의 하나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즉 산업계와 학계를 연결시키는 창구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어느 정보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때 이 분야 전문가를 찾아 준다던지 회원들의 전공분야 및 전문기술을 담은 회원명부를 기업체에 배부하여 직접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체를 위한 단기강좌 및 산업체 연구과제의 유치 및 관리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회의 위상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술의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5세대 컴퓨터개발과제때는 독자적인 힘으로 해보겠다고 고집하던 일본이 10년이 지난 Real World Computing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 오늘날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의 하나입니다. 우리학회도 국제적인 유사학회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서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위상이 그들과 같아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긴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금년 한해 동안 그 기반을 닦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빈틈없는 계획과 강력한 실천력에 있습니다. 새해의 설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가능성 사고(Possibility Thinking)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자 및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가능성 사고를 가지고 금년 일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릴 때에는 활기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정보산업은 21C 의 기간산업



송 병 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새해를 맞아 전자공업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업계에 여러 모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이제 냉전의 시대가 가고 경제력과 기술력이 힘의 바탕이 되고 있는 기술력 제일주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첨단 과학기술 진흥에 대하여 정부의 선도기능과 재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완성된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of Informationh Industries : NSII)과 이의 적극적인 선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3년은 정보산업계에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겨울을 많은 정보 산업인들의 기대 속에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이 마련된데 이어 금년부터는 동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국가전략계획중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기본목표로, 92년 말 현재 GNP대비 0.4%에 이르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중을 2001년까지 GNP대비 2% 수준으로 올리고 수출액도 1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96년까지 생산액은 1%, 수출액은 1억달러 돌파를 중간목표로 잡고, 이 목표의 달성에는 '96년까지는 연평균 37.5%, 2001년까지는 연평균 23% 성장 달성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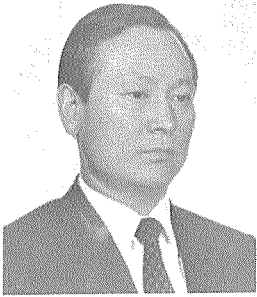
이번 육성전략 실시에 즈음하여 우리 업계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잘 활용하여 업계와 개인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이며, 정보산업을 도외시하고는 세계의 경제전쟁 속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산업의 기술향상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

으며, 아울러 정보산업의 축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제일의 감부는 석유제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회사의 30대 젊은 회장이며, 1992년도에 일본에서는 제일 높은 순이익을 낸 회사는 신일본제철이나 소니같은 거대기업이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닌텐도사라는 것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들은 바로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일궈나가는 선구자이며 세계 산업의 최첨단에선,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업계의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업계와 우리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전자공업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번창을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성 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계유년 새아침을 맞아 전자공업인 여러분들께 번영과 발전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의 경제여건은 향후 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설비투자증가율이 4% 내외에 그치고 경제성장률은 '80년 이후 최저수준인 5%에 머무는 등 경제의 내부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올해의 경제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환경은 경제블록화 현상의 강화, UR협상의 진전, 지구환경보호시대의 돌입 등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이 경제전망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선진국은 기술보호주의에 의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등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차원의 산업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와 같이 어려운 국내외적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산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역자증가를 둔화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잠식된다는 인식하에 보다 획기적인 역자증대단계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술혁신 위주의 기업전략을 강화하여 자체기술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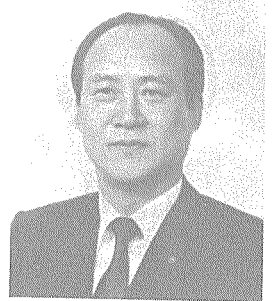
한편 앞으로 출범하게 될 신정부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기업에게 정책적 지원수단을 집중하는 기술위주의 정책기조와 기술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확립·마련하여 산업계에서도 기술개발에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범국가적인 기술혁신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2000년대 기술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에 산기협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술주도 산업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국가적 기술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기업이 기술경쟁

의 주역으로서 기술중심의 경제의 지를 갖고 세계적인 변화와 도전을 기술혁신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수단을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전자공업인 모두가 기술혁신에 대한 열의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저력이 발휘되어 기술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형제품 개발로 국제시장 대응해야



이헌조 / 가전산업협의회 회장
(주)금성사 부회장

희망찬 계유년 새아침을 맞이하여 전자공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삼가 새해인사 드립니다. 1993년은 내내 모든 분들께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고 큰 소망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고, 여러분의 일터에는 활력이 넘쳐 흐르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가전업계는 주요 제품의 보급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내수시장의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성장의 원동력을 잃은 채 고전해야 했습니다. 또 해외시장에서도 선진국의 무역 규제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제품의 저가경쟁에 밀려 참으로 힘든 경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우리 업계의 근로자와 경영자들은 위기 의식을 공유하여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워낙 여건이 열악해서 성장률이나 채산성은 우리가 흘린 땀에 비하면 매우 미흡합니다만, 그나마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합심하여 분투 해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업계의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가전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경기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중남미, 동남아, 중국 등 잠재력이 큰 신시장이 차츰 활성화되는 등 좋은 조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NAFTA와 EC 단일시장의 형성에 자극을 받아 보호무역의 색채를 띤 경제 블록이 속속 생겨날 우려가 크고 동남아산 저가품의 공세도 날로 거세어져 우리의 수출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시장의 구매 수요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내수 영업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업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창립 3년째를 맞는 가전산업협의회는 좀더 실질적인 협력으로 업계를 결속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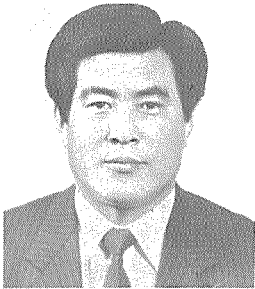
지난해 우리 가전산업협의회는 유통시장의 개방에 대처해 국내 가전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밀반입된 외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는데 가장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폐가전제품의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개선 및 관련 법안의 개정을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우리 업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업계는 시장에서는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슬기와 힘을 합치는 성숙한 동반자로서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첨단 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품질 혁신에 매진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감각에 맞는 한국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세계 일류의 제품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1993년은 지난해 우리를 괴롭혔던 어려움을 모두 털어내고 우리 가전산업계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김종길 / 컴퓨터산업협회 회장
(주)삼보컴퓨터 사장

컴퓨터 산업의 도약을 위해

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93년은 새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면서 전자, 특히 컴퓨터 업계로서는 최근 1~2년간의 부진을 씻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한해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의 컴퓨터산업을 전망하건데, 우선 수출에 있어서 데스크탑기종에서 포터블시장으로의 급격한 구조변화와 후발 저임금 국가의 추월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M을 기반으로 PC 조립 위주의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국내 업체로서는 더욱 증대되는 특허료 등 기술료 지불과 금융비용 지불증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핵심부품의 개발부진과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의 부재로 인한 경쟁력 미확보 등이 가세되어 어려운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수부문에 있어서는 기업의 투자와 민간소비의 위축, 수출부진으로 인한 내수공급의 과잉, 소비자의 구매 유보 등이 현재 컴퓨터 내수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동향은 '91년부터 급격히 저하되어 '92년에는 전년대비 3%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쳤고 이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당분간 이러

한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예상이 주요원인입니다.

이렇게 볼때 국내 컴퓨터산업의 침체원인과 타개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 저임금을 무기로 IBM 호환기종의 OEM 위주 수출로 시작한 국내 PC 산업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기술개발의 부진 등 질적인 성장에 소홀히 해온 결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특허분쟁 등에 처해진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대만, 태국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마저 잃게 된 것이 침체의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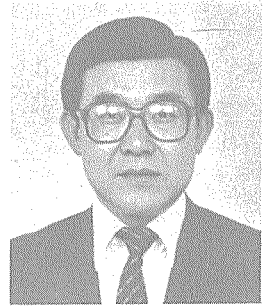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전략상품 개발, 즉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략상품과 HDD, FDD, 마더보드 등의 주변기기 및 중대형 컴퓨터로의 구조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세계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조합해 내는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고 볼 때 국제마케팅 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의 협조를 통해 부품의 표준화, 공동개발을 실현하고 정부의 적절하고 총체적인 육성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육성전략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현재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통상마찰 및 특허압력에 대한 대처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한 정보화 사회조성 정책의 수립, 정보산업의 전문인력 배양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춰 구성된 정보산업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며 한시적 정책수립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한편 컴퓨터산업에 몸 담고 있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힘써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개발, 공동구매, 기술 및 특허의 공유, 중간계의 표준화, 과당경쟁지양, 생산업체의 전문화 추구, 정보교환 등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93년을 맞는 우리 업계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개방물결을 기술력으로 극복하자.



박성규 / 통신산업협의회 회장
대우통신(주) 사장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자 공업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번영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대망의 계유년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양대산맥을 갖추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선 통신망과 유선 통신망이 연결되면서 비로소 완벽한 통신체계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의 다양화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 개별망에 의한 대중 서비스 제공은 각 망의 총합화, 표준화, 광 기술 실용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 통신을 포함하는 통신망의 구축은 통신산업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도 함께 일어날 전망인데 단순히 듣는 서비스에서 보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 가능한 서비스로 다중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 고도 서비스로 변모 할 것입니다.

통신시장의 변화는 개방화, 국제화 물결을 따라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는데 올해에도 대내외적인 자유화의 진전과 경쟁 심화로 새로운 시장 구조로 변화 할 것입니

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통신시장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국제전화사업과 정보통신사업, 이동통신사업의 구조 조정작업에 이어 신규무선 통신 서비스의 사업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이를 조정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 국제화 물결에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생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의 공동 개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갖도록 예산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2,000억이 넘는 정보통신 설비 투자액이 교환기, 이동통신, 전화기, 패킷교환서비스 분야 등에 적절히 배분되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을 하여 시장대응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시장수요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셀룰라 자동

차전화,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V), 이동데이터통신서비스, 텔러미널의 국산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기술력 확보나 가격 경쟁력이 외국업체에 뒤져있는 국설교환기를 비롯하여 전송장비, 반송장비 등이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업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전자공업인 여러분!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임무는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각자가 맡고 계신 분야에서 자긍심과 포부를 갖고 자기 기량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는 밝다하겠습니다.

경심각세의 좌우명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담아 계유년 새해를 힘차게 뛰어봅시다.



새해를 맞이 하면서.....

백석채 / CATV기기산업협회의 회장
동양텔레콤(주) 사장

계유년의 첫 닭이 울었습니다. 여명의 새벽을 여는 청명한 닭의 울음소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일깨워 주는 희망의 약속이며, 어둠의 공포를 몰아내고 삶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축복의 소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CATV 산업은 방송용기기, 전송설비, 가입자단말장치 등 각종의 기기공급업자와 더불어 프로그램공급업자, 설비 운영업자 등이 함께 어우러져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거대 산업으로서, 동산업이 오늘날의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참으로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CATV 관련기구나 S/W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CATV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여러기구들이 설립되어, CATV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TV기기의 국산화 추

진 필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국제수지 측면으로서, CATV의 보급에 따른 각종 고가 기자재들의 수입과 이에 따른 각종 운영장비의 추가적 수입이 불가피하고, 향후 위성방송이나 HDTV 등 선진 기술과의 접목시, 관련 기자재 및 기술의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그 밖에도 각종 기술료의 지불 등 엄청난 국제수지의 마이너스효과가 예상됩니다. 둘째, 기술적 측면으로서, 각종 기기 및 S/W의 수입, 사용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수입이 불가피하여지고, 따라서 국산 기자재 개발이 상대적으로 요원하여지므로써 기술적으로 상대국에 예측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협의회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작년 하반기 발족 이래, 짧은 기간이었습디만,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업계 공동으로 인체내의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감시 시스템 및 가입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S/W의 공동개발에 착수하였고, 또한 전송용 표준 AMP의 공동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CATV업계 공동시찰을 추진하

는 등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공동개발의 의의는 첫째, 업계의 중북투자와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적으로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구할 수 있고, 둘째 외국 기술에의 종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국제수지 개선의 효과가 크고, 넷째, 국내 CATV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부에서 CATV 운영업자 허가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 등 관련 기관과 더불어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실험을 거쳐, 특정지역에서의 실용화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판매 확보에 진력할 것이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품질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격 표준화작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CATV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쌍방향디지탈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 노력과 光 CATV에 대한 연구에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 대응할 예정이며, 아직 일부 분야에서 미진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는 방송용 기기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기류에 대한 단순 수출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대한 Turn-Key 방식의 일괄 수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발전에 진력하시는 전자공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9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자공업인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자산업은 기상, 환경, 그리고 국방, 해양, 우주산업분야까지 그 이용분야가 무한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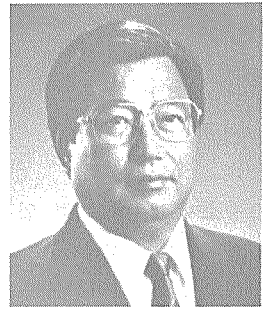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3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중 생산과 수출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 세계의 주요전자공업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92년에는 200억불 수출로 세계 5위 전자산업국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서 선진국들은 우리 전자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의식하여 자국이익을 내세운 수입 규제와 기술이전 및 부품공급을 기피하여 기술보호장벽이 가속화됨으로써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여 품질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전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로자의 잔업기피 등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풍토로 수출을 못하는 상황마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써 우리 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가 어려운 국면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도처에서 한국인이 물려온다는 경계의 소리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

'93 새해에 바란다.

박태원 / 자판기산업협의회 회장
합동정밀(주) 사장



으로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찬사와 격려를 보내던 외국언론들도 이제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국민으로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냉철한 각오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93년을 재도약의 해로하여 다시뛰는 신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과 기술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과 성실성이었고 이러한 요소들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를 지탱하여 준 근본 바탕이었습니다.

우리는 필연코 선진국대열에 올라야 하며 오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90년대의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2000년대의 선진산업사회로 도약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 모두가 자기역할에 충실하며 맡은바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인은 창의와 책임을 바탕으로 근로자는 근면과 성실로 노·사 화합을 이룰때 우리경제는 더 굳건한 반석위에 발전을 계속할 것이며 선진산업사회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

니다. 조그마한 나라 대만이 1만 600불이라는 국민소득을 달성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이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절약, 저축, 그리고 생산성 제고, 수출을 위한 부단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때 개인은 개인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1993년은 기대와 희망의 해입니다.

신 한국 창조를 위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의 해로서 안정된 사회 속에서 신한국 창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전자산업이 우리의 산업여건과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할때 2000년대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전자공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에 기업인, 국민 모두가 내 자신이 바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주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경제, 우리 전자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